

[위상미술] 2020년 3,4월 심화이론 서양미술사

기출문제와 Q 모범 답안

● 166페이지 중간 Q

형식	지주와 상인방 구조 도리아식 · 이오니아식 · 코린트식 돌을 잘라 만든 벽돌	둥근 아치, 궁륭 구조 코린트식 · 복합형 장식 문양 콘크리트
----	--	--

● 169페이지 17 답

첫째, 고전주의 양식은 엄격한 규칙성을 추구하여 비례 미, 콘트라포스토 등을 중시하는데 비해 헬레니즘 양식은 규칙성이 무너지고 자유로운 표현을 하였다. 둘째, 고전주의 양식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 숭고한 표정이 나타나는데 비해 헬레니즘 양식은 희노애락과 비애감 등의 감정 표현이 얼굴에 나타난다. 셋째, 고전주의 양식은 정동중의 동세를 가지는데 비해, 헬레니즘 양식은 역동적이고 복잡한 자세가 나타난다.

● 170페이지 아래 Q

- (가) 부드러운 붓을 사용해 배경을 검정색으로 발라 문양을 붉게 나타내며 형태 내부의 경계선은 검은 안료를 묻혀 그려서 완성된다.
- (나) 검은 안료로 칠한 다음 인간과 동물을 병렬형으로 반복적으로 배치하고 가늘고 섬세한 도구로 조각한다.
- (다) 문양 부분은 검은 안료로 발라서 형상을 만들고 내부 선을 굵어서 붉은 도자기 색이 나타나도록 한다.

● 181페이지 18 답

표정 (가) 눈을 크게 뜨고 천사와 마리아가 변화가 없다. (나) 천사는 눈을 뜨고 자신을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고, 마리아는 의심의 눈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입을 꼭 다문 모습이다.

자세 (가) 둘 다 입상으로 천사는 날개를 내리고 차분한 왼쪽 모습을 통해 고지하는 모습이고, 마리아는 전면의 자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나) 천사는 날개를 들어 막 내려앉은 모습으로 손짓을 통해 고지하는 모습이고, 마리아는 몸을 S자로 틀고 발은 안쪽으로 숨겨 경계하는 모습이다.

● 189페이지 위쪽 표 채우기

특징	극적 명암 효과 역동감과 긴장감	질서있는 안정감 역사 · 종교적 · 지적	사실 재현적 명암 대비 존엄성	역동적인 사실감 관능미 구현 화려함	현실적 사실적 기교적 표현 시각적 정확성
----	----------------------	---------------------------	------------------------	---------------------------	------------------------------

● 191페이지 위에 Q 답안

(가)의 뒤로 물러난 공간은 관객들의 정면의 시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의 아들인 한자 인간의 육신을 지닌 연약한 존재로 보고 물감을 쌓아 올려 영혼의 빛으로 물든 심오한 화면은 삶의 고통과 승화에 대해 성찰케 한다. (나)의 화면은 장대한 스펙터클로 보는 이를 압도하는 영웅적 인체로 묘사되어 있는데, 웅장하고 동적인 화면 구성력으로 밝고 풍만한 육체를 감각적이고 관능적이면서 밝게 타오르는 듯한 풍요로운 색채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 197페이지 16 답

(가)는 강력했던 왕정이 약화되면서 귀족과 부르주아가 성장하여 **사치와 향락적인 생활 모습을** 주제로 표현했다. (나)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나폴레옹 정부가 집권하여 **정치적이고 역사적 신화적 영웅적인 주제**를 주로 다루었다.

● 202페이지 19 답

(가) 전통의 수용은 표현 기법에서 명암법과 원근법, 관념적인 고유색을 답습한 것이고, 전통의 부정은 신이나 천사 등 눈에 보이지 않은 대상, 역사적이고 귀족적, 이상화된 인물 표현 등을 하지 않고, 현실의 일반 시민을 사회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나) 전통의 수용은 과거의 명작을 인용한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린다는 것, 검정색의 사용 등이고, 전통의 부정은 원근법과 명암 대조법, 관념의 색이고, 인상의 색을 토대로 대상을 평면으로 표현했다.

● 203페이지 아래 Q 답안

(나) 영감의 원천

- 고갱 : 스테인드글라스와 원시성
- 고희 : 인상주의와 일본 우키요에, 신인상주의의 점묘

(다) 표현에서 중시한 것

- 고갱 : 강렬한 원색적 분위기 창출과 극적 대비, 종교적 감흥
- 고희 : 꿈틀거리는 선과 거친 표면적 질감, 강렬한 콘트라스트

● 210페이지 위쪽 표 채우기

- 현대 모더니즘의 추상 미술에서 제거해버린 회화의 특성을 재도입하였다.
- 알아볼 수 있는 내용과 역사적인 언급, 주관성, 사회 발언 등 강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내용과 날카롭게 각이 지고 왜곡된 형태를 추구하였다.

● 220페이지 22 답

가보는 공간을 측정 불가능한 볼륨이자 연속적인 깊이로 보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물질적 중량감을 떠는 덩어리를 부정하고, 용적 측정법을 사용하여 덩어리를 나타내는 부분의 중간 지점을 선재, 면재를 사용하여 드러내어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려 하였다.

타틀린이 예술을 실용적 목적에 종속시켜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본 것과 유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가보는 공산주의 생산 개념을 거치기 이전 물질의 순수한 형태를 깨닫게 하고자 했다.

● 246페이지 16 답

첫째, 나뭇가지와 바위, 시멘트, 밧줄, 철판 등 **지극히 일상적이고 보잘 것 없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둘째, 전통적 재료가 아닌 변형을 가하지 않은 비정통적 재료를 사용해서 개념적인 이해가 아닌 감각적인 방식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첫째, 빈곤한 재료와 단순히 조립된 오브제에 지나지 않는 형태를 토대로 경쟁과 상업성을 피하면서 예술과 생활의 경계를 없애 관객의 참여를 촉진하였다. 둘째, 변화하는 작품을 통해 가변적인 물질의 본성을 토대로 삶에 대한 성찰하도록 하며, 지배적인 미학적 표준과 미술 문화에 반발했다.

● 247페이지 22 답

첫째, 엘리트 중심, 남성 백인 중심의 미술 문화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둘째, 미술관이나 박물관 위주의 전시와 수동적인 관람자 태도, 획일적 표현 방식을 타파했다.

(나)는 행위를 지시하는 개념적 언어로 이루어진 악보로 간접적인 텍스트화된 문구이고, (다)는 작가가 벡 타이에 먹물을 묻혀 직선을 그어가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벤트는 명확한 지침서와 계획서가 있지만 작품이 창조되는 상황이나, 맥락적인 것, 참여자에 따라 다양하고 즉흥적이며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행위적 미술이다.

● 265페이지 17 답

(가)는 공예적 기법인 여성 성기 모양의 접시를 도자기로 제작하고, 역사 속 여성 명사들의 이름을 수놓은 식탁보를 제작하여 삼각형 형태의 테이블로 설치하여 여성 명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방식을 취한다.

(나)는 대중매체에 등장한 여성의 모습으로 작가가 분장하고 사진을 찍어 제시한다.

(가)는 여성과 남성을 다른 것으로 보고 여성만의 독창성을 중시한다. 남성 중심의 역사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여성명사들, 위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재인식 시키고자 한다. (나)는 사회와 대중매체에 의해 억압, 강요당하는 여성성을 비판하며 그 여성성에 정체성이 없음을 비판한다.

어디 어두움만 있고 빛만 있으랴

[위상미술]